



## 사월 초파일일이 얼마나 좋은 봄날이고 기쁜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야외법회로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법회 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염불 소리가 합쳐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여러분이 스님들을 따라서 같이 해 주십시오. 빨리 하거나 늦게 해 버리면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네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도 너무 빠르게 하면 넘어가는 소리가 애들 글 읽는 소리 같으니까 좀 느리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사를 시작하면서 야외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신심이 돈독해서서 불사를 일찍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스님네들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불사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진리에 순응하면서 사계절을 맞고, 또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항상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가 손자로 태어나도 증조 할아버지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전에 그 속에는 빠저린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빠저린 아픔은 어떤 것인가. 즉 말하자면 인간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별레도 모두 생명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각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벌레나 하등 동물 같은 것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만약에 장마가 들려고 하면 개미나 벌레 또는 어떤 짐승들은 미리 다 알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며칠을 격해 놓고 아예 그냥 식구들을 다 몰고 갑니다. 세간 짐을 트럭에다 싣고 갑니다. 허허...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 연이어서 등애다가 함께 짊어지고 발을 맞춰서 몰고 나가는데 아주 비호갈이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옥수수나 수수도 장마가 들어서 애쓸 것

같으면 '야! 올해 장마가 든다면 큰비가 와서 뿌리가 뽑힐 테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뿌리를 양쪽으로 발려서 박고 쓰러지지 않도록 마라미리 방지를 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알을 낳고 풀 속 깊이 들어갑니다. 나무 위에다 걸쳐 놓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여러분한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풍마려." 하면 "그러면 빨리 풍을 뉘라." 그러고, 어린애가 너무 어려서 바지를 못 벗으면

바지까지 벗겨 주면서 변소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론이나 가설이 붙습니까? 진정코 그런 게 붙지 않죠? 애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 얼른 물 떠다 주면 됐지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목말라서 물 먹는데 이론이 왜 붙습니까, 거기? 목마르니까 그냥 먹는 것뿐이지요.

불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렇게 직결돼 있다 이겁니다. 생활하고 직결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일심이니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업이 있었는지, 또 현실에 어떠한 업을 짊어졌는지, 미래에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지 이런 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물질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천체물리학으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좀 더 깨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동서남북에 뭐가 걸려서 이사를 못 가는지, 또 부적을 해서 붙어야 되는지 나쁘니 좋으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신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게 걸려서 그렇게 되고 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미신이 아니라면 미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고 빠저린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어 그렇게 모습을 바꾸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모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이제 사월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죠.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한 오천 명이 거기에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절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천 명이려면 산을 하얗게 매울 정도니까요. 거기는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두 겨울 오바나 잠바들을 걸치고 포대기를 걸치고, 이렇게 하고 밖에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촛불을 켜는데 그 마음들이 그저 자기 촛불만 잘 켜려고 애쓰더라 말입니다. 자기 등만 좋은 데다 달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꼬달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기 달면 어떻고 저기 달면 어떻습니까? 꼭 법당 앞에만 걸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싸움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젊은이 셋이 등을 걸러다가 노인네들이 "젊은이! 왜 남 걸어 놓은 데다 이렇게 부딪치고 이러느냐." 하고 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양보하고선 산모퉁이를 돌아서 산신각 옆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절에 다니면서 인등을 켜라고 하시죠? 그것은 인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인등인 것입니다. 몸뚱이는 등이고, 마음 중심은 촛대요, 마음내는 것은 불이라는 얘깁니다. 촛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한 평생 산다 한들 한 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한 철 사는데, 바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참선! '주인공이 수없는 역경을 거쳐 오면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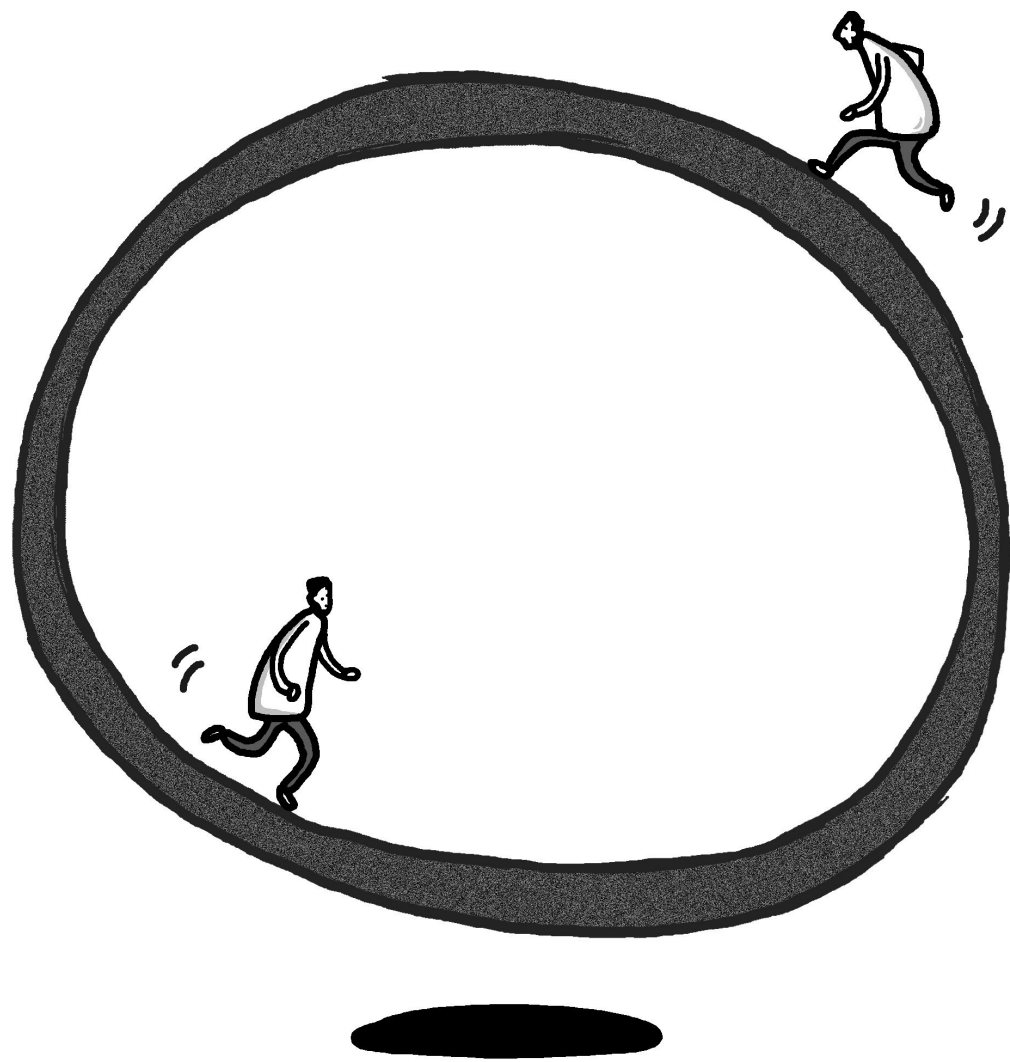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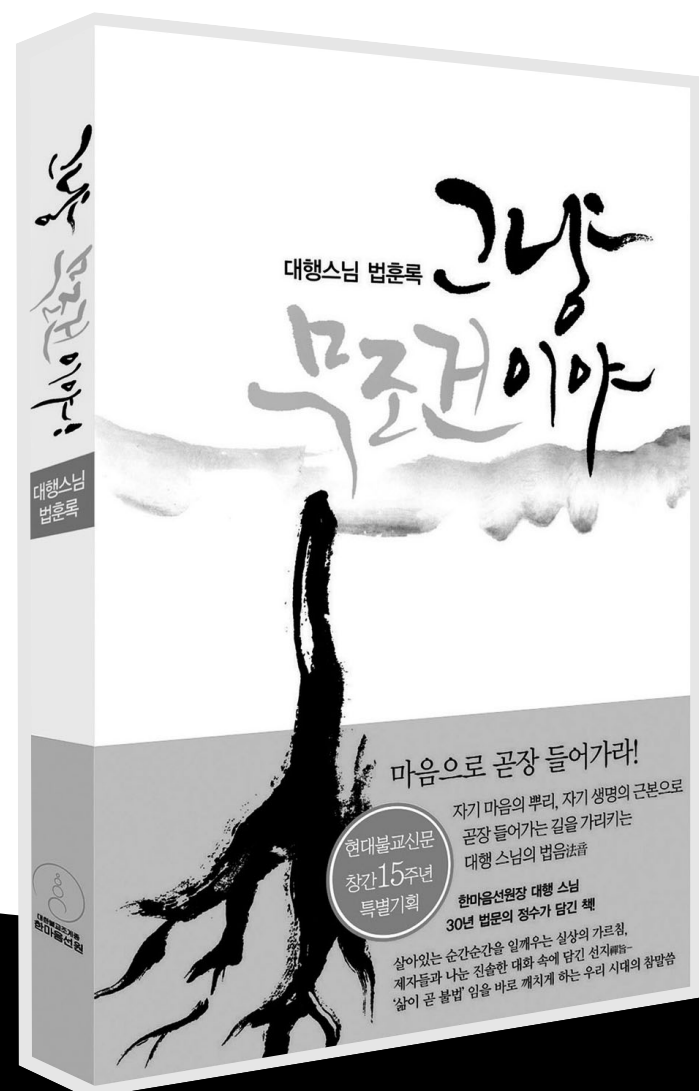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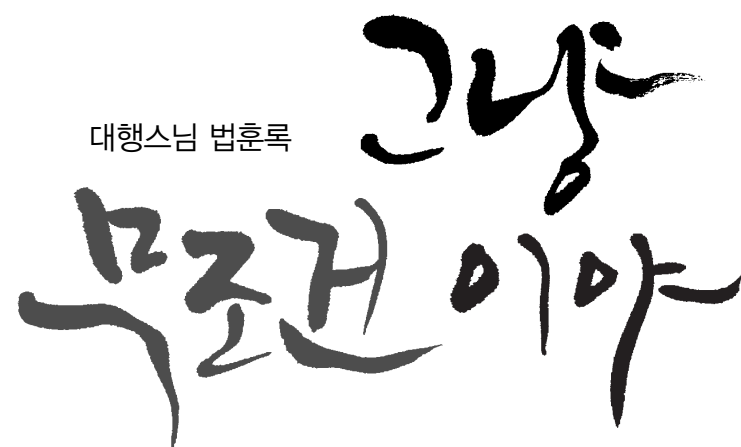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